



### 효심과 애향심을 기르는 추석 명절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농경문화에 뿌리를 둔 우리 민족은 대부분 조상이 농촌에서 살았고 지금은 도시에 살지만, 부모는 고향인 농촌에 사는 사람이 많다. 자녀는 부모 사랑의 도움을 받고 자랐으며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효심이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효도다. 명절 때 고향을 찾아 민족이 대 이동하는 것은 효심과 애향심 때문이다.

추석 한가위 명절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이다. 해마다 추석이 되면 귀향하는 사람들로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경문화에 뿌리를 둔 우리 민족은 대부분 조상의 고향인 농촌이고 농촌에서 자라고 성장해 산업 사회가 되면서 도시로 진출해 살고 있다. 해마다 추석 명절이 되면 고속도로가 차량 행렬로 막혀 평소보다 3~4배의 시간을 소비해서 귀향하고 있다.

고향에는 노부모가 계시기도 하지만 조상의 묘소에 성묘하려고 귀향하고 있고 고향에서 일가친척을 만나고 정을 나누는 기회가 되기도 하며 전례품에 의한 추석의 전통 놀이를 고향에서 즐기기도 한다. 농경문화는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며 농사는 농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해야 하며 이러한 일을 도와주시는 것이 조상이며 하느님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추석날은 새로 거둔 햅쌀과 햇과일로 차례상을 차리고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 풍속이다.

추석 명절은 우리의 전통적인 효 문화의 큰 맥을 이루는 행사다. 추석날이 되기 전에 조상의 묘소에 별초하고 차례상 차리기 위한 음식 준비를 하는데 차례상에 올릴 과일이나 생선은 가장 좋은 것을 보관했다가 제상에 올리게 된다. 따라서 제사 음식 준비를 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효심에서 우러난 정성이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제사음식은 차례를 지낸 후 자손들이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며 같이 먹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큼 풍요로우라" 라는 이 말은 풍요로움에 대한 만족을 말하고 있다. 추석이란 성숙과 결실, 풍요를 상징하기도 했기에 궁핍하기만 했던 그 시절엔 '하루

하루가 추석만 같아라!' 했을 것이다.

추석(秋夕)의 유래는 신라 시대 김쌘놀이인 가배란 별칭에서 유래한 것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가위로 변했고 예기(禮記)의 춘조월(春朝月) 秋夕:봄엔 아침 달, 가을엔 저녁 달)에서 추석이란 말이 나왔다고 하고, 가을의 한가운데라고 해서 중추(中秋), 가을이 한창때 명절이라고 해서 중추가절(仲秋佳節)이라고 한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한가위라고도 하는데 '한'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뜻을 가진 옛말로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로 설과 단오와 함께 우리나라의 3대 명절의 하나로서 농경문화의 사회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었다.

올해의 농사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태풍피해와 수해를 이겨내는 어려운 농사였다. 연어 떼가 사력을 다해 태어난 곳을 찾아 이동하는 모천회귀(母川回歸)처럼 인간에게도 이런 본능이 있다.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인 고향에 대한 향수(鄉愁) 본능이다. 한가위 명절을 맞아 도로가 정체되고 석유탄 값이 올라도 기를 쓰고 고향을 찾아가는 데에는 이런 향수 본능이 밑바닥에 깔렸다.

추석 때 고향을 찾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고향을 찾는 효심의 이동이며, 즐거움의 이동이며, 애향심의 이동이며, 활력을 충전하기 위한 이동이다. 추석 명절 때 우리가 할 일은 나에게도 부모와 조상이 있고 일가친척이 있으며 고향이 있음을 직접 보고 듣고 배우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의 부모 조상과 고향에 대한 할 일을 알아보는 계기가 되는 추석 한가위 명절이 되어야 한다.

고향에 갈 때 선물을 가지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고향에서 얻은 물질적인 선물을 가득 안고 다시 일터로 향하는 귀경길에 오르게 된다. 추석 명절은 우리 민족에게 효심과 애향심을 심어주고 활력을 충전해주는 명절로서, 다른 민족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명절로 자리를 잡아 가야 할 것이다

칼럼

### 올 추석은 단·소(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를 선물하세요

기고

최낙승 담양소방서 곡성110안전센터 소방교



온 가족이 오랜만에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할 명절 추석. 하지만 갑작스러운 화재는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 따라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소방시설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불리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며,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며,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기구이며,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기는 층마다, 세대별마다 1개 설치를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각 방마다 설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방 3개, 거실로 된 집이라면 각 방마다 1개씩 거실 1개로 총 4개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까운 마트나 소방업체, 소방관서에 문의하면 손쉽게 구매 설치할 수 있다. 이 둘은 화재 사실을 알려 빠른 피난 및 119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올해 담양소방서에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인해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으니 적극 설치하여 올 추석 선물로 부모님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여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

### 집회 소음기준 지켜 시민에게 공감받는 집회문화 정착

기고

오건우 광양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최근 개최되는 집회시위 양상을 보면 불법·폭력 사태는 줄었지만 차량방음을 이용한 스피커 소음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회는 주택가, 상가, 학교주변 등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개최되는데 소음문제로 인해 주거권, 학습권, 영업방해 등 일상생활에 적잖은 불편을 주고 있다.

경찰에서는 소음관리법을 운영하여 집회 개최 시 소음기준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고 있지만 대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시민들의 피해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관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집회시위 관리보장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보호 또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회시위 주최자와 일반 시민의 권리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최근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에는 소음 기준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고 소음도)를 도입, 평균 소음도의 기준을 약용하여 데시벨(dB)을 조절하는 사례를 방지하였다. 집회 개최 시 질서유지선과 더불어 마이크, 확성기 사용 소음기준을 준수하며, 합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b>호남신문 i-honam.com</b>		<b>대표전화 (062) 229-6000</b>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맨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총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자가 00021 (연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고

### 노인을 위한 '도로', 알고 계셨나요?

김정은 여수경찰서 홍보담당 경장

노인 보행자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2008년부터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차량 속도 제한 및 일정 시설을 설치하는 '노인보호구역(실버존)제도가 도입됐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스쿨존'처럼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셈이다.

하지만 '실버존'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해 도로를 건다 사망한 사람은 1018명이었고, 그 중 노인은 601명으로 무려 59%에 달한다. 10명 중 6명이 노인이라는 이야기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가량 많은 수치이다.

단속카메라가 없는 길 이용해 과속하는 차들과 노인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들이 난무하는 도로 위에서 노인이 보호받고 있지 못한 것이다.

또한 걸음이 느린 노인들이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기 전에 횡단보도 선



호들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순간도 종종 목격한다. 몸이 약한 노인들은 작은 사고도 생명이 큰 지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노인의 안전 보호 확보가 시급한 문제이다.

일단 실버존으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속도 30km/h~50km/h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이 2배이다. 또한 보행신호 등 점멸 시간이 연장되어 노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실버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은 물론 실버존의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현실 속에서 노인들의 보행이 위협받고 있다.

걸음이 느린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실버존에 대해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보호시설과 공원부근에는 의무적으로 실버존 설치를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노력이 노인을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해본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